

 금융위원회	<b>보도참고</b>			
	보도	배포 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 김 수 호(02-2100-2880)	담 당 자	윤 우 근 사무관 (02-2100-2881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제 목: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코로나19 대응 위해 FSB 차원의 회사채 시장 모니터링 및 규제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

### 1. 회의 개요

- '20.4.21(화) 20시30분(한국시각) FSB(Financial Stability Board)는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)를 컨퍼런스 콜로 개최하였습니다.

<참고: 금융안정위원회(FSB) 개요>

- ◇ (연혁)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**금융안정포럼(FSF)**을 전신으로 하며,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 **G20**이 참여하는 **금융안정위원회(FSB)**로 확대·개편
- ◇ (기능)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,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**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**을 위한 **금융규제 개혁** 추진

-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, 19개 주요국\* 중앙은행·금융감독당국 등의 장, 국제통화기금(IMF)·유럽 중앙은행(ECB)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

\* 호주, 브라질, 캐나다, 중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일본, 한국, 멕시코, 네덜란드, 러시아, 사우디, 싱가포르, 남아공, 스페인, 스위스, 영국, 미국

- 이번 운영위원회는 '20년 개최된 세번째 임시회의\*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, 코로나19 관련 정책 대응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.

\* [1차 임시회의] 3.5(목) / [2차 임시회의] 3.19(목)

### 2. 주요 내용

- FSB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가 완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.
- 하지만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역성장을 전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(uncertainty)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건전성 리스크(solveny risk)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
- F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,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차 확산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(illiquidity)이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
- FSB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3가지 방향 (①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, ②정책대응 관련 정보 공유, ③국제기준 제정기구[Standard Setting Body]\*와 국제공조 방안 마련)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\* BCBS(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), IOSCO(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) 등 금융업권별 건전성·감독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

### 3. 주요 발언 내용

- 금융위원회(손병두 부위원장)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4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  - 하지만,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실물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,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.
  - 특히, IMF 등이 전망한 역성장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FSB가 회사채 시장 및 회사채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
- 아울러,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완화(regulatory flexibility)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
  - 다만, 규제완화는 국가별 규제 분절화(regulatory fragmentation)에 따른 규제차익(regulatory arbitrage) 추구 행위를 조장하여 금융안정성(financial stability)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,
  - FSB와 국제기준제정기구가 적절한 규제완화 수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고 각국의 호응을 받았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
--	--	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